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Mm.b.3 KIN

(주)인권정보자료실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활동백서



사물놀이 공연 (2002년 11월 23일 KIS 여는마당 가운데)

2002. 12. 16.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110-07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90-16 1층 Tel. (02)706-5880 Fax. (02)706-5001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활동 백서



사물놀이 공연 (2002년 11월 23일 KIS 여는마당 가운데)

2002. 12. 16.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110-07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90-16 1층 Tel. (02)706-5880 Fax. (02)706-5001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발 간 사>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국외 6개국 재외동포들을 발제자로 초청하는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아래 심포지엄, KIS)을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의 목적은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국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사회 내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KIS 추진위원회는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재외동포와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 해외 발제자들과 국내 토론자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한국 재외동포의 역사에 대한 심충적인 이해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내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생산된 공동 선언문에서는 “한국/조선의 혈통이나 국적을 가진 자와 그 후손들”이라는 대안적인 재외동포 개념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분단사고와 혈통적 민족주의를 넘어 포괄적으로 재외동포를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리고 폐쇄적인 재외동포 개념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문제를 재외동포와 함께 토론할 수 있었던 이번 심포지엄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실질적인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혈통을 넘어, 그리고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국가의 소수민에 관한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백서는 올 한해 KIS 활동과 그 의미를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백서가 KIS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2004년 뼈제스부르그에서의 제2회 KIS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엄을 위하여 함께 힘껏 뛰었던 KIS 추진위원회 성원들, 바쁜 일정에도 해외에서 참여해 주신 재외동포 발제자분들, 국내 토론자분들, 번역자분들, 그리고 재정적 후원을 해주셨던 시민운동지원기금과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 12월 16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책임자 권준희

<글 싣는 순서>

■ 발간사	2
■ 글 싣는 순서	3
■ KIS 추진 경과보고	4
■ KIS 선언문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6
■ 재외동포 발제자 및 국내 토론자 소개	10

<제1부>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모음

■ KIS 행사기획안 & Project Proposal	15
■ 시민운동지원기금 사업신청서	43
■ 시민운동지원기금 사업변경서	49
■ 재외동포재단 재정지원 요청서	53
■ 시민운동지원기금 중간보고서	57
■ 시민운동지원기금 최종보고서	63

<제2부> KIS 추진과정 자료집 모음

■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73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1	81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2	111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3	131
■ '재외동포법 개정' ... 행정사항 정리보고	143
■ 제1차 워크샵: 재외동포재단 현황 및 사업소개	151
■ 제2차 워크샵: 한국사회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173

<제3부> KIS 추진활동 자료 모음

■ 의제계발 질문지	213
■ 수령증 양식	217
■ 초청 리플렛	218
■ 초청장 등 각종 공문 및 이메일 공지 문안	220
■ 보도자료 및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문안	227
■ 신문 기사	244
■ 행사 사진	251

<제4부> KIS 평가서 모음

■ KIS 추진위원회 전체 평가서	255
■ KIS 의제계발팀 평가서	261
■ KIS 행사실무팀 평가서	265
■ KIS 해외넷워크팀 평가서	271
■ "우연을 통해 맺은 인연" (러시아 최인나씨 소감)	279

<KIS 추진 경과보고>

◇ 2001년 10월 5일

시민운동지원기금에 KIS 신청

◇ 2002년 2월 6일

시민운동지원기금과 KIS 추진 계약 체결

◎ KIS 준비위원회

2월 9일 제 1차 회의

3월 2일 제 2차 회의

3월 16일 제 3차 회의

◎ 3월 23일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 KIS 추진위원회

4월 6일 제 1차 회의

4월 27일 제 2차 회의

5월 5일 제 3차 회의

◎ 상반기 공개세미나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5월 25일 제 1차 세미나 : 미국-브라질

6월 1일 제 2차 세미나 : 독일-중국

6월 8일 제 3차 세미나 : 일본-구소련

◎ KIS 추진위원회

7월 13일 제 4차 회의

7월 23일 제 5차 회의

8월 10일 제 6차 회의

8월 24일 제 7차 회의

8월 31일 제 8차 회의
9월 7일 제 9차 회의
9월 14일 제10차 회의

◎ 하반기 내부 세미나 - 각국 재외동포 정책 및 소수민족 정책

8월 10일 제 1차 세미나 : 일본 아이누 정책
8월 24일 제 2차 세미나 : 각국 소수민족 정책
8월 31일 제 3차 세미나 : 각국 재외동포 정책
9월 7일 제 4차 세미나 : 한국 재외동포 정책
9월 14일 제 5차 세미나 : 한국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현황

◎ 9월 28일

KIS 준비 제1차 워크샵 -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현황

◎ KIS 추진위원회

10월 5일 제11차 회의
10월 12일 제12차 회의

◎ 10월 19일

KIS 준비 제2차 워크샵 - 한국사회 소수민족 도입의 필요성

◎ KIS 추진위원회

11월 2일 제13차 회의
11월 9일 제14차 회의
11월 16일 제15차 회의

◎ 11월 23~25일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 12월 7일 제16차 회의 - KIS 평가회의

<KIS 선언문>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 6개국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담아 -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에서 소수민족(민족적 소수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조선 재외동포들과 함께 2002년 11월 23~25일 한국 서울에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을 열었다.

우리는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재외동포가 서로 다른 소수민족 혹은 이민 정책에 따라 상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노동자, 미등록(불법)노동자 등 다양한 법적 지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재외동포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공히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특히 각국 소수민족·이민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 그리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서로 비교하며,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1>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동포 190만, 러시아 등 CIS동포 52만, 일본동포(조선적 포함) 120만 명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국동포 210만, 캐나다동포 14만, 브라질동포 5만, 호주동포 5만, 독일동포 3만 명 등도 해당된다.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재외동포는 내국민에 준해 대우되어져야 하며, 외국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져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이것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적극 지원하되, 국내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 업무를 일관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개정돼야 한다. 또 재외동포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재외동포 단체나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의 국내 참정권은 당장 보장돼야 한다.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때) 국적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 망명자 등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조건없는 입국이 보장돼야 한다. 재외 한국학 강좌의 개설, 한국문화원 등의 건립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2만 화교

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가슴아파한다. 재외동포들이 한/조선 반도를 떠나 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배제와 차별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화교들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

화교는 물론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영주자격은 보다 확대돼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등록(불법)노동자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특히 개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인신적 모욕 등의 인권침해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국적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국적부여 방식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속지주의를 결합한 형태다. 한 나라가 국적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 되었다. 하지만 이주·이민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된 오늘날, 국적이 다른 혈통에 대해 배타적인 ‘혈통주의적 국적부여 방식’은 인권보장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속지주의적 국적부여 방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요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 끝으로 우리는 이번 심포지엄이 6개국 재외동포에 의해 한국어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거주국의 언어’에 의해 습득된 경험은, 전세계 소수민족으로서 한/조선 민족이 주목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어로 진행하는 국제행사가 더욱 많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각국 재외동포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2002년 11월 25일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참가자 일동

<재외동포 발제자 및 국내 토론자 소개>

◇ 독일동포 최영숙

1992년 전 재유럽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대표

현 한독문화협회 회장

◇ 독일동포 신효진

1994년 사물놀이페 '천동소리' 공동창립

현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대학원 음악 전공

◇ 토론자 남상희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 미국동포 김대영

2000년 캔스스 주립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현 메릴랜드대 사회학과 아시안계 미국인학과 조교수

◇ 토론자 박준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 전공 박사과정



◇ 러시아동포 최인나

한국문학 박사과정

현 상뜨뻬쩨르부르그대 한국어한국문학 전임강사

◇ 토론자 유의정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연구원



◇ 일본동포 송승재

1994년 재일한국학생동맹 효고현 본부 부위원장

현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 토론자 조경희

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



◇ 브라질동포 김범진

1993년 브라질 한국대학생협회 회장

현 상파울로시 법률 보좌관 및 브라질한인회 부회장

◇ 토론자 최금자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 중국동포 양옥금

1987년 중국중앙민족대학 민족학 연구생반 졸업

현 중국연변대 교수, 민족연구원 민족이론연구소장

◇ 토론자 김화선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제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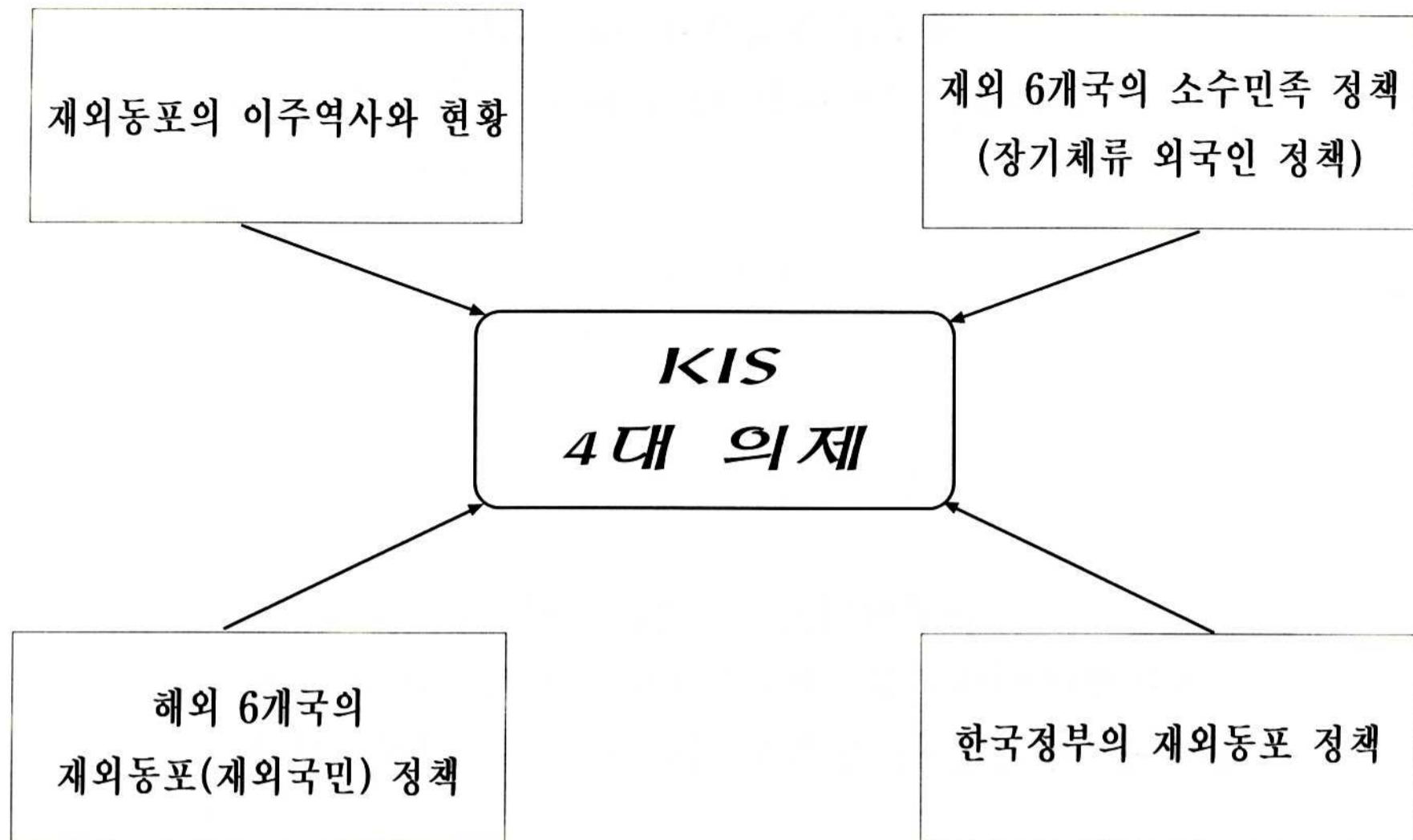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모음

- KIS 행사 기획안 (Project Proposal)
- 시민운동지원기금 사업신청서
 - 민간운동 지원사업 신청서
- 시민운동지원기금 사업변경서 - 세부사업계획서
- 재외동포재단 재정지원 요청서
 -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KIS) 지원 요청
- 시민운동지원기금 중간보고서
 - 2002년 시민운동지원기금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 시민운동지원기금 최종보고서
 - 2002년 시민운동지원기금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S 행사 기획안"**

2002. 3.

소수민족 시작에 선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기 획 배 경

- ⇒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는 570만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임
- ⇒ 이들이 인류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클진대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음
- ⇒ 한국사회는 평소 재외동포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다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민족적 감정이 과도하게 분출돼
재외동포의 인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고민이 전무한 실정임
- ⇒ 한편, 국내 이주노동자도 30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모국 입장에서는 재외동포(재외국민)임

K
I
S
**목
적**

- ⇒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이주역사 및 현황을 개괄하고,
- ⇒ 남미,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이상 6개 지역을 선정해 각국의 소수민족 및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 ⇒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 ⇒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선정함
- ⇒ 이를 통해 한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해 역지사지의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함

**의
제
설
정
취
지**

의제1: 재외동포의 이주역사와 현황

- ⇒ 재외동포의 이주역사는 서로 상이하여 일반화될 수 없기에 재외동포의 이주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 동포를 이해하는 출발임
- ⇒ KIS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문현연구를 통해 재외동포의 이주역사와 현황을 개괄함
- ⇒ 세부의제
 - ①재외이주 당시 국내 및 이주국의 상황(이주의 원인)
 - ②재외이주 후 정착과정(재외동포 사회의 역사)
 - ③거주국 내 재외동포들의 위치(재외동포의 현황 및 과제)

의제설정
취지

의제2: 해외 6개국의 소수민족(장기체류 외국인) 정책

- ⇒ 해외 6개국의 소수민족 및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을 비교·검토해 이들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이후 도입돼야 할 국가적 조치를 정리함
- ⇒ 해외 6개국에서 섭외한 초청발제자들이 거주국의 소수민족 및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을 정리해 옴
- ⇒ 세부의제
 - ① 소수민족 현황 및 소수민족 관련법 유무
 - ②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관행들 및 각종 인권보호와 우대조치
 - ③ 외국인의 국적취득 조건과 절차 및 취업·사회보장 제도
 - ④ 재외동포 사회의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의제설정
취지

의제3: 해외 6개국의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

- ⇒ 해외 6개국의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을 비교·검토해 각국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의 특징들을 정리함
- ⇒ 해외 6개국에서 섭외한 초청발제자들이 거주국의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을 정리해 옴
- ⇒ 세부의제
 - ① 재외동포 현황 및 해외동포 관련법 유무
 - ②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여부 및 국내 출입국 문제
 - ③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의
제
설
정
취
지

의제4: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 ⇒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함
- ⇒ KIS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해외 6개국에서 섭외한 초청발제자들이 비판함
- ⇒ 세부의제 ①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개괄
 ②재외동포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③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

KIS 세부행사 기획 원칙

- ① KIS 행사의 성과는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렴돼야 함
- ②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논의 뿐만 아니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③ KIS 행사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청발제자들의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도우미를 1명 이상씩 모집함
- ④ 논의·토론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⑤ KIS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함

KIS 세부 행사 기획

- ① KIS 행사는 11월 중 2박 3일간(토~월) 진행함
- ② 「의제1」은 주최측에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간단명료하게 발표함
- ③ 「의제2」와 「의제3」은 해외 2개국씩 짹을 지어 비교·검토함
이때 ‘러시아-중국’, ‘미국-브라질’, ‘독일-일본’이 각각 짹이 됨
- ④ 「의제4」와 관련해서는, 주최측 기조발제가 있고
이후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가 기조발제에 대한 논평 및 요구사항을 밝힘
- ⑤ KIS 행사는 참가자들이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마무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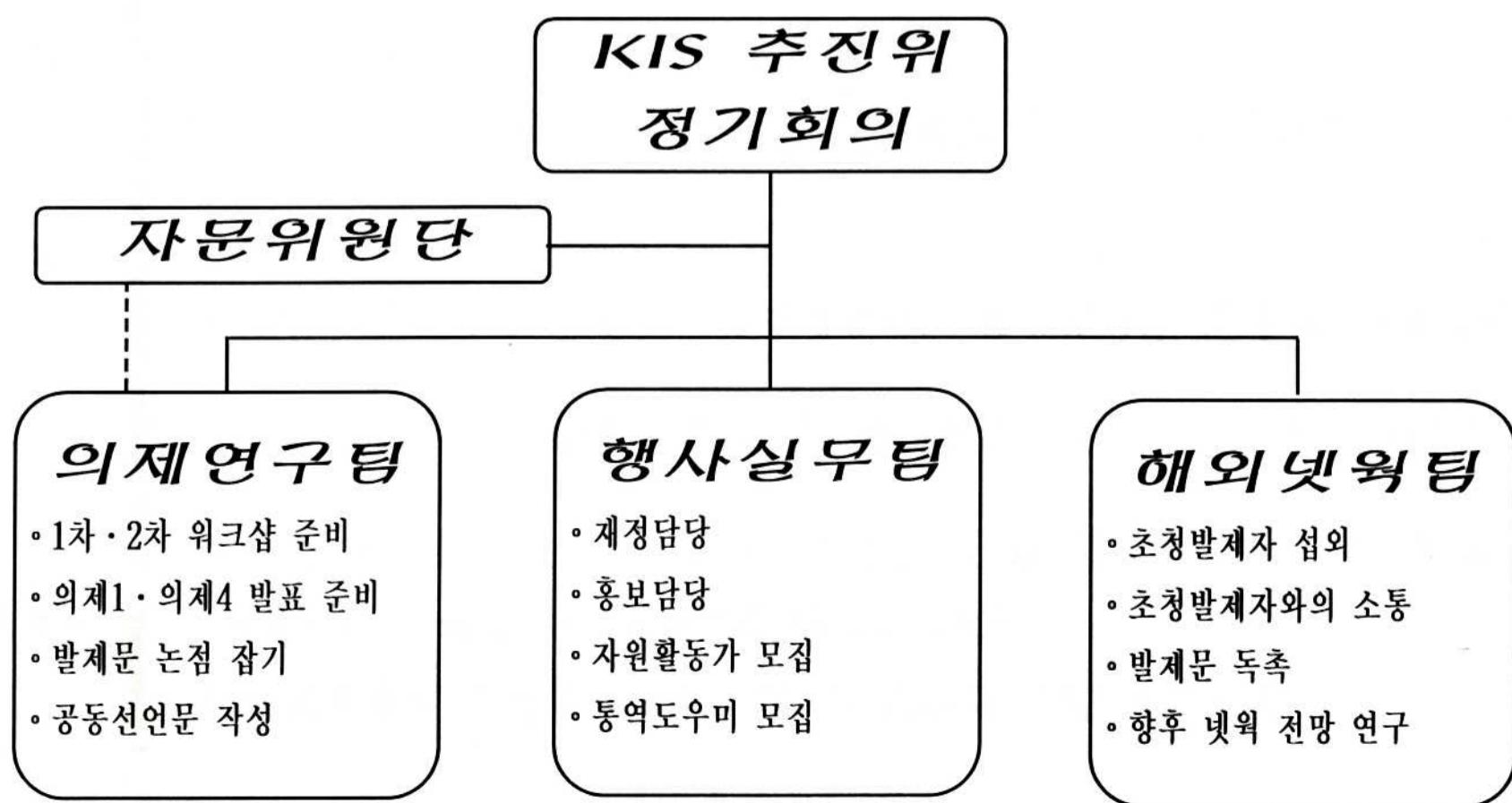
KIS 세부 행사 시간표

시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11시		<제2마당> 러시아-중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비교	<제5마당> 한국 재외동포 정책 및 검토
12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1시			
2시		<제3마당> 브라질-미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비교	<닫는 마당> KIS 행사 참가자 공동선언문 초안 검토 및 작성·발표
3시			
4시			
5시	<여는 마당> 참가자 소개 및 친교활동	<제4마당> 독일-일본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비교	
6시	저녁식사		
7시		저녁식사	
8시	<제1마당> 해외동포 이주역사와 현황 KIS 행사 취지 발표		
9시		한국 재외동포 정책 과제와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 선정 작업	

KIS 준비활동 일정

- ① 3월 23일 -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 ② 4월 중 - 6개국 초청발제자 섭외
- ③ 6월 22일 - 1차 워크샵 (국내 소수민족 시각에 선 발상법을 위하여)
- ④ 9월 28일 - 2차 워크샵 (한국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 ⑤ 11월 23~25일 -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S 추진위원회 체계



K
I
S

재
정
원
칙

- ⇒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들은 최소4박5일간 국내 체류하게 됨
(행사시작 전날부터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이때 국내체류비(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와 왕복항공료를 지원받게 됨
- ⇒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 항공료는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전액 지출함
- ⇒ 해외 6개국 초청발제자는 국내체류비는 험스테이를 통해 일부 해결하고
일부는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지출함
- ⇒ 추진위 발족식 및 2차례의 워크샵 경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적자액은 KIN에서 지원함
- ⇒ KIS 본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지출하고
백서 제작시 인쇄비는 KIN에서 지원함

Project Proposal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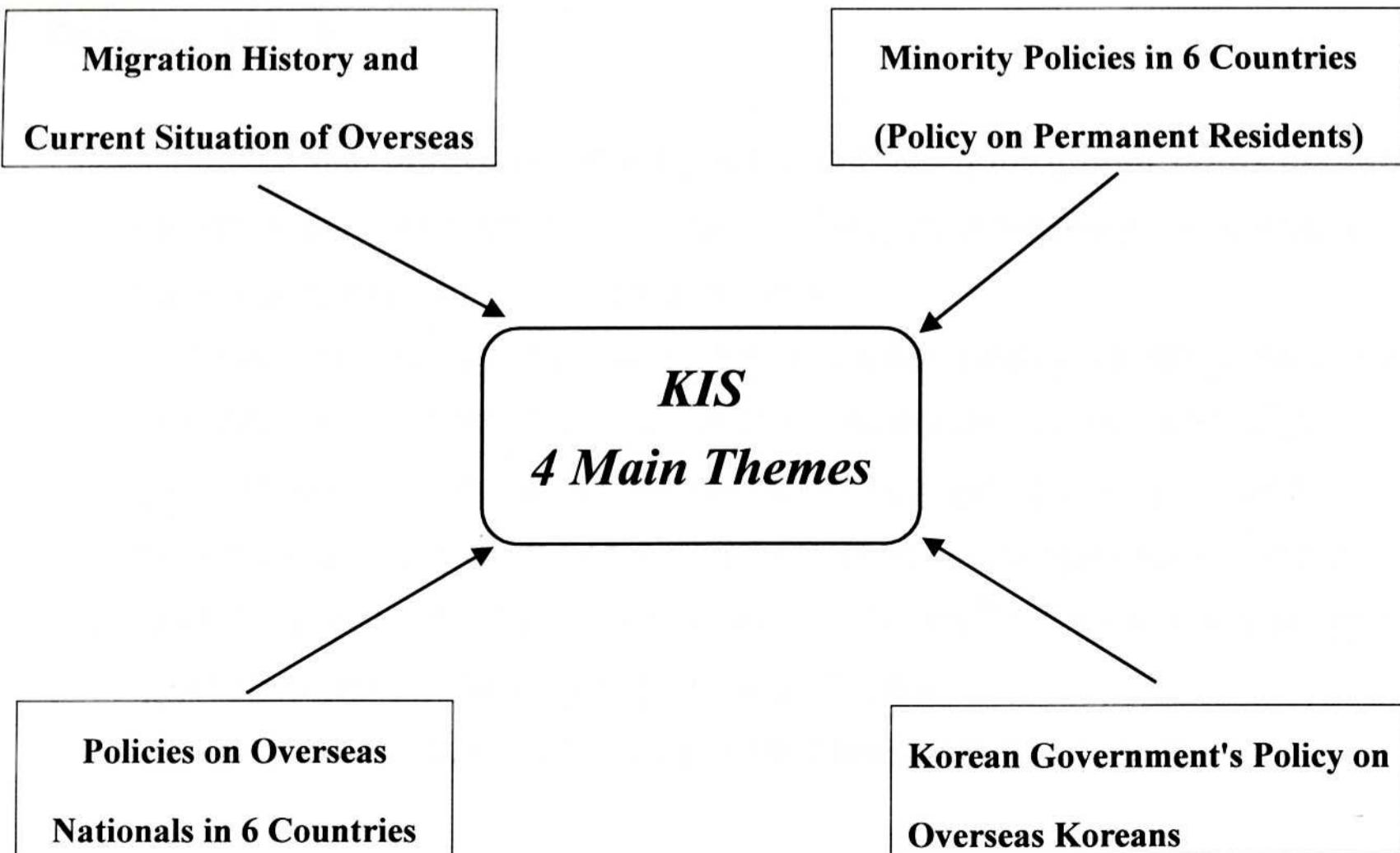
Overseas Korean

March 2002.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KIN)

About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KIN)

- ❖ KIN - Progressive Network of Korean youths worldwide and of Korean ethnicity for mutual exchange, cooperation, & solidarity
- ❖ KIN opposes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gender, culture, and economic reasons for Korea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ns abroad (in 150 countries, approx. 6,000,000). KIN hopes to build a basi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progressive and open Koreans can share a mutual exchange, education, and solidarity.
- ❖ KIN tries to bear a role in advancing a civilian culture and fostering a community for progressive and open minded Koreans in Korea and abroad through solidarity activities concerning mutual worldwide issues; activities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nd exchanges of knowledge, information, culture, and skills between progressive and open-minded Koreans.
- ❖ KIN, as a place for exchange, equality, and solidarity, hopes for participation from progressive and open-minded Koreans from abroad and Korea.



Background

- ⇒ While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has reached 5.7 million Korean society is currently disregarding them
- ⇒ despite their potential contributions to the progress of Humanity,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overseas Koreans has been abstractive and unclear
- ⇒ Korean society is normally unconcerned with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but over reacts in nationalist rage whenever a human rights violation on them has occurred lacking rational and systematic awareness on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Koreans
- ⇒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bout 300,000 migrant workers in Korea. They are also overseas nationals from the position of their home countries.

Purpose of KIS

- ⇒ Overview the migration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overseas Koreans worldwide
- ⇒ Select 6 countries like Latin America, Germany, Russia, the US, Japan, and China and examine their policies on minorities and permanent residents
- ⇒ By critically analys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overseas Koreans
- ⇒ recommend better policy on overseas Koreans and set future tasks of overseas Korean communities in each region
- ⇒ Propose a new policy direction for the policy on overseas Koreans and seek to raise Korean society's awareness on migrant worker

Theme 1: Migrant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Overseas Koreans

- ⇒ Migrant history of overseas Koreans cannot be generalized since migrations to different regions took different forms, thus, understanding diverse migrant histories of overseas Koreans is the starting point
- ⇒ KIS Preparation Committee will overview the migrant histories and current situations of overseas Koreans through literature review
- ⇒ Sub themes
 - ☛ Domestic and overseas(destination countries) situations(Cause of migration)
 - ✖ Process of settlement (History of overseas Korean communities)
 - ✚ Status of overseas Koreans in the countries of residence
(Current situations and tasks of overseas Koreans)

Theme 2: Minorities (Permanent Residents) Policies in 6 Countries

- ⇒ Compare and examine policies on minorities and permanent residents in 6 different countries and summarize the existing or future state measures
- ⇒ Invited speakers from 6 countries will present their countries' policies
- ⇒ Sub themes
 - ☛ Current Situation of minorities and related laws
 - ✖ Existence of discriminatory practices or institutions and/or variou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affirmative actions
 - ✚ Conditions procedures of citizenship for foreigners and their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system
 - ❗ Problems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efforts to solve them

Theme 3: Policies on Overseas Nationals in 6 Countries

- ⇒ Compare and examine the policies on overseas nationals in 6 countries and summarize their special features
- ⇒ Invited speakers will report their countries policies
- ⇒ Sub theme
 - ☛ Current situation of overseas nationals and related laws
 - ✖ Dual citizenship and entry and exit procedures Various
 - ✚ preferential measures for overseas nationals

Theme 4: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Overseas Koreans

- ⇒ Overview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overseas Koreans and get feedbacks from the overseas Koreans themselves in search for a new policy direction
- ⇒ KIS Preparation Committee will make a keynote presentation and invited speakers will respond critically
- ⇒ Subthemes
 - ☛ Overview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overseas Koreans
 - ✖ Problems identified in the ratification and revision process of the Overseas Koreans Act
 - ✚ Future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overseas Koreans

KIS Planning Principles for Detail Programs

- ☛ It is imperative that the event focus on recommending a Overseas Korean Policy and tasks for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 ✿ Not only free discussion and debate, but networking based on friendship amongst invited speakers are encouraged
- ❖ Korean will be used in the meetings, however, the preparation committee will recruit one or more translating volunteers for each invited speakers
- ! Use of various audio and visual materials are encouraged
- Actively recruit many volunteers as possible

KIS Detail Programs

- ☛ The event will take place in 23-25. November for 3 days (Sat. to Mon.)
- ✿ A concise presentation of Theme 1 will be presented by the preparation committee
- ❖ For Theme 2 and Theme 3, invited speakers in pair will compare and examine their cases: Russia-China, the US-Brazil, Germany-Japan
- ! For Theme 4, the preparation committee will make a keynote presentation and invited speakers will respond
- Participants will declare a statement which will be released to the press at the closing session

KIS Program Schedule

Time	23.November SAT	24. November SUN	25. November MON
AM 11		<Session 2> Russia-China Comparison of Policies on Minorities and Overseas Nationals	<Session 5> Korea' Policy on Overseas Koreans
12		Lunch	Lunch
PM 1		<Seesion 3> Brazil-the US Comparison of Policies on Minorities and Overseas Nationals	<Closing Session> Preparation and Declaration of the KIS Statement
2		<Session 4> Germany-Japan Comparison of Policies on Minorities and Overseas Nationals	
3		Dinner	
4	<OPEN CEREMONY> Introduction and Reception		
5			
6	Dinner		
7	<Session 1> Migrant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Declaration of KIS's Purpose		
8			
9		Round Table	

Finance/Budget

- ⇒ Invited speakers must stay at least 5 days (1 day before the event and 1 day after the event), all expenses excluding airfare will be paid
- ⇒ Some of the invited speakers will be provided with homestead accommodation and for other accommodation paid for by the Citizens' Movement Support Fund will be provided
- ⇒ The necessary expense of KIS will be paid by the Citizens' Movement Support Fund and in the case of publishing a white paper, its expense will be bore by KIN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민간운동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 명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S)		
2. 사업 기간	2002. 2. ~ 12.	3. 사업 지역	중국, 일본, CIS 미국, 유럽, 호주, 한국
4. 총 소요액	20,955,000원	5. 지원신청액	10,000,000원
6. 응모 분야	단체 역점 사업		
7. 단체명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印			
주 소 (110 - 07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연락처 전화 : (02)735-4327 팩스 : (02)735-4328			
Email : kin@kin.or.kr Homepage : www.kin.or.kr			
대표자명 양영순 印			
담당자 배덕호 직책 : KIN 사무국장 印			

위와 같이 본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는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의 「2002년도 민간운동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1 부)
 2. 별첨한 요약서 양식에 맞춘 요약서 (1 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계획서 (1 부)
 4. 단체 소개서 (1 부)

2001년 10월 5일

단체명: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印

사업요약서

사업명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주관단체명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대표자명	양영순		
사업기간	2002. 2. ~ 12.	응모분야	단체 역점 사업
사업총액	20,955,000원	지원신청액	10,000,000원

사업내용 : (* 300~400자 내외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요약해 주십시오.)

<사업목적>
6개지역 해외동포들의, 이주노동자이자 소수민족으로서의 삶과 실태를 조명하고, 각 소수민족 및 이주정책을 상호비교함으로써, 이주노동자와 해외동포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밝혀, 국내외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함.

<사업내용>
중국, 일본, CIS, 미국, 호주, 유럽 6개 지역의 해외동포단체에, 각 국의 소수민족 및 이주정책에 관한 연구를 의뢰, 2차례 워크샵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각 국 코리안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 연구성과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함.

<기대효과>

- 이주노동과 해외동포의 문제를 소수민족의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
- 단일민족 국가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는 한국사회에 소수민족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극복함
- 국내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
- 전세계 Korean들이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제 심포지움(KIS)을 개최함으로써 소수민족으로서의 Korean을 자각하고 국제연대활동 및 네트워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함

<지원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S)

2. 사업 목표

-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여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Korean들은 오늘 날 560만에 이르고 있다.
- 중국, 일본, CIS, 미국, 호주, 유럽 이상 6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Korean들을 국내에 초청해 심포지움을 개최해, 이주노동자이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외동포의 삶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사회에 제기한다.
- 결국 이주노동자와 해외동포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밝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배타적 민족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사업추진 기간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준비기간 포함)

4. 사업 개요

- 중국, 일본, CIS, 미국, 호주, 유럽 6개 지역의 해외동포단체에, 각 국의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 2차례 정도의 워크샵을 통해 국내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 각각의 연구성과를 한 자리에 모으고, 국내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소요경비 내역 및 산출예산안〉

5.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시기	주요 내용	세부추진	비고
2-3 월	KIS 행사추진위 구성 준비 및 자문위원회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가 능통한 10명 안팎의 행사위원 선정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전문가 10명 정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해외 6개지역 단체 홍보·섭외 방문 	
4월	KIS 행사추진위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추진위 및 자문위원회 구성 완료 KIS 행사취지문 작성 및 각국 언어로 번역 	
5-6 월	해외동포단체 섭외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N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IS에 참가 할 해외동포단체를 6개지역에 걸쳐 섭외완료 	
5-10 월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해외연구 작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 참가단체들이 각국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해 연구작업을 진행 KIS 발제문 작성 완료 	
7월	이주노동과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제1차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 중심으로 워크샵 진행 국내 이주노동과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문제점 규명 	
9월	국내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에 관한 제2차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 중심으로 워크샵 진행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문제의식을 국내에 소개해 소수민족적 가치를 제기함 	
10-11 월	국제심포지움 (KIS)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N 홍보, 각국 발제문 한국어 번역 및 각국 언어통역자 섭외 KIS 개최 및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형성 	
12월	KIS 백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 행사의 성과 및 한계 평가 KIS 행사 마무리 	

6. 기대 효과

- 이주노동과 해외동포의 문제를 소수민족의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가치관 형성
- 단일민족 국가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는 한국사회에 소수민족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극복
- 국내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
- 전세계 Korean들이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소수민족으로서의 Korean을 자각하고 국제연대활동 및 네트워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

- 1) 총 소요 경비 : 20,955천원 (100%)
 2) 지원 신청액 : 10,000천원 (47.7%)
 - 6개 지역 KIS 행사 초청비 : 8,000천원
 - KIS 행사 진행비 및 자료 제작 : 2,000천원
 3) 자부담 : 10,955천원 (52.3%)
 4) 내역별 산출예산안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액			산출근거
	계	지원금	자부담	
기획비	20,955	10,000	10,955	
회의진행비	1,055		7,055	프로그램 기획비
행사위원 단합대회	155		155	5천×35차례=155천
자문위원 회의비	300		300	150천×2=300천
6개국 섭외 여행경비	600		600	30천×10인×2차례=600천
KIS 행사추진위 발족식	900	900	0	KIS 행사 준비비
발족식 자료집	100		100	1천×100권=100천
장소 대여비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500		500	500천
제1차 워크샵	1,000	1,000	0	1차 워크샵 진행비
발제 강연료	500		500	100천×5인=500천
워크샵 자료집	100		100	1천×100부=100천
장소 대여비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100		100	100천
제2차 워크샵	1,000	1,000	0	2차 워크샵 진행비
발제 강연료	500		500	100천×5인=500천
워크샵 자료집	100		100	1천×100부=100천
장소 대여비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100		100	100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10,000	10,000	0	심포지움 개최 및 진행비
6개지역 해외동포단체 초청경비	8,000	8,000		(강연료, 항공료 전액, 체제비 일부 지원) 1,000천(중국)+1,000천(일본)+1,300천 CIS)+1,500천(미국)+1,500천(호주)+1, 000천(유럽)=8,000천
KIS 자료집	300	300		2천×150부=300천
장소대여비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100	100		100천
번역비	600	600		100천×6인=600천
홍보비	300	300		300천
행사 뒷풀이비	400	400		400천
백서 제작	1,000	1,000	0	5천×200부=1,000천

〈세부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S)

2. 사업 목표

-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여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Korean들은 오늘날 570만에 이르고 있다.
- 중국, 일본, CIS, 미국, 남미, 유럽 이상 6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Korean들을 국내에 초청해 심포지움을 개최해, 이주노동자이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외동포의 삶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사회에 제기한다.
- 결국 이주노동자와 해외동포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밝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배타적 민족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사업추진 기간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준비기간 포함)

4. 사업 개요

- 중국, 일본, CIS, 미국, 남미, 유럽 6개 지역의 해외동포단체에, 각 국의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 2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국내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 각각의 연구성과를 한 자리에 모으고, 국내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소요경비 내역 및 산출예산>

5.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시기	주요 내용	세부 추진	비고
2-3 월	KIS 행사추진위 구성 준비 및 자문위원단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가 능통한 10명 안팎의 행사위원 선정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전문가 10명 정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해외 6개지역 단체 홍보·섭외 	
3월	KIS 행사추진위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추진위 및 자문위원단 구성 완료 KIS 행사취지문 작성 및 각국 언어로 번역 	
4월	해외동포단체 섭외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N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IS에 참가 할 해외동포단체를 6개지역에 걸쳐 섭외완료 	
5-10 월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해외연구 작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 참가단체들이 각국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해 연구작업을 진행 KIS 발제문 작성 완료 	
6월	이주노동과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제1차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 중심으로 워크샵 진행 국내 이주노동과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문제점 규명 	
9월	국내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에 관한 제2차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 중심으로 워크샵 진행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문제의식을 국내에 소개해 소수민족적 가치를 제기함 	
11월	국제심포지움 (KIS)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 개최 및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형성 	
12월	KIS 백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 행사의 성과 및 한계 평가 KIS 행사 마무리, KIS 보고서 발간 	

6. 기대 효과

- 이주노동과 해외동포의 문제를 소수민족의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접근 하는 새로운 가치관 형성
- 단일민족 국가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는 한국사회에 소수민족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극복
- 국내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
- 전세계 Korean들이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소수민족으로서의 Korean을 자각하고 국제연대활동 및 네트워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

- 1) 총 소요 경비 : 15,955천원 (100%)
 2) 지원액 : 8,000천원 (50.1%)
 - 6개 지역 KIS 행사 초청비 : 6000천원
 - KIS 행사 진행비 및 자료 제작 : 2,000천원
 3) 자부담 : 7,955천원 (49.9%)
 4) 내역별 산출예산안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액			산출근거
	계	지원금	자부담	
기획비	1,055	2,055	2,055	프로그램 기획비
회의진행비	155	155	155	5천 × 35차례=155천
행사위원 단합대회	300	300	300	150천 × 2=300천
자문위원 회의비	600	600	600	30천 × 10인 × 2차례=600천
국제전화료	1000	1,000	1,000	6개지역 섭외 전화비용
KIS 행사추진위 발족식	900	900	900	KIS 행사 준비비
발족식 자료집	100	100	100	1천 × 100권=100천
장소 대여비	300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500	500	500	500천
제1차 워크샵	1,000	1,000	1,000	1차 워크샵 진행비
발제 강연료	500	500	500	100천 × 5인=500천
워크샵 자료집	100	100	100	1천 × 100부=100천
장소 대여비	300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100	100	100	100천
제2차 워크샵	1,000	1,000	1,000	2차 워크샵 진행비
발제 강연료	500	500	500	100천 × 5인=500천
워크샵 자료집	100	100	100	1천 × 100부=100천
장소 대여비	300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100	100	100	100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10,000	8,000	2,000	심포지움 개최 및 진행비
6개지역 해외동포단체 초청경비	8,000	6,000	2,000	(강연료, 항공료 전액, 체제비 일부 지원) 1,000천 (중국)+1,000천 (일본)+1,300천 (CIS)+1,500천 (미국)+1,500천 (남미)+1,700천 (독일)=8,000천
KIS 자료집	300	300	300	2천 × 150부=300천
장소대여비	300	300	300	300천
행사진행비	100	100	100	100천
번역비	600	600	600	100천 × 6인=600천
홍보비	300	300	300	300천
행사 뒷풀이비	400	400	400	400천
KIS 백서 제작	1,000	1,000	1,000	5천 × 200부=1,000천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el. (02)735-4327 Fax. (02)735-4328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 문서번호 : KIN2002-KIS추-0422-01

■ 수 신 : 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

■ 참 조 : 재외동포재단 정동일 기획홍보실장

■ 발 신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추진위원회 (담당: '범용'이, likebird@jinbo.net)

■ 제 목 :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KIS) 지원 요청

■ 일 시 : 2002. 4. 22 (월요일) (총17pages)

1. 재외동포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귀 재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오는 11월 23~25일 2박3일간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KIS)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IS에는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및 남미지역에서 현재 재외동포로 살아가고 있는 학자나 활동가가 참석해 그 나라의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정리하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방향을 고찰할 예정입니다.

3. 작년말 재외동포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현 시점에서, 각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 나라 정책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재외동포 재단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KIS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2,300만원으로, 이중 재외동포재단에 600만원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1. KIS 행사 예산안
2. KIS 행사 계획서1)
3.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소개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1) 'KIS 행사 계획서'는 애초 「지원 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활동백서」 <제1부>의 'KIS 행사기획안'과 동일하여 생략함

KIS 행사 예산안

○ 개요

- 전체 예산액 - 2,300만원
- 지원 요청액 - 600만원 (KIS 행사 장소대여 · 홍보비 및 자료 인쇄비)

○ 지출내역

- 기획비 - 100만원

회의진행비 20만원

국제전화료 80만원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에 관한 6차 공개세미나 - 300만원
(5월 25일, 6월 1일, 6월 8일, 8월 3일, 8월 24일, 9월 7일)

연구자문비 200만원

자료복사비 60만원

행사진행비 40만원

- KIS 준비 워크샵 - 200만원

- 제1차 : 국내 소수민족 시각에 선 발상법을 위하여 (6월 22일)
- 제2차 : 한국 재외동포 정책 방향 고찰 (9월 28일)

발제강연비 100만원

자료집인쇄비 20만원

장소설외비 60만원

행사진행비 20만원

- KIS - 1,400만원 (11월 23~25일)

재외동포 초청교통비 600만원

재외동포 체류비 400만원

행사진행비 40만원

번역비 60만원

장소대여비 100만원

홍보비 100만원

자료집인쇄비 100만원

- KIS 백서 제작비 - 300만원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소개

단체명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주 소	주소 /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el.(02)735-4327 / Fax.(02)735-4328 / E-mail. kin@kin.or.kr / Web-site. www.kin.or.kr	
설립 일	1999년 2월 27일 창립총회	
설립 목적	지구촌 동포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진보적 네트워크로서 국내외 동포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각국 동포사회의 평화와 인권의 실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지구촌 공동체 실현을 위해 연대함	
주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 동포간 교류사업 동포사회 및 지구촌 공동체 관련 교육 홍보 사업 동포사회 관련 정책 연구 및 대안 제발 동포지원협력사업 및 국제연대 사업 	
직책	이 름	주 요 경 력
대 표	배덕호	재외동포법개정대책위 대변인 겸임
감 사	문광명	세경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주 요 임 직 원	강혜정	일본어 전문통역사
	김석규	진보사회를 위한 사회인모임 전대표
	김종철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박홍섭	코리아아트센터 한국본부장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
	이종훈	국회 연구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조여권	사진활동가
	김해동	베를린 노동교실 회원
국 외 자문위원	윤운섭	베를린 노동교실 회장
	이희영	베를린 공대 박사 과정
	임진철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아태경제문화발전연구소장
	최영숙	베를린 사물놀이페 천둥소리 매니저
	회원 현황	국내 138명, 해외회원 31명
실무자 현황	집행위원 3명, 실행위원 4인	
조직 구성	총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책교육실, 미국위원회, 일본위원회	

□ 1999 주요사업 추진실적

- 국내 해외동포-국내청년간 공개포럼 총 5차례
- 조선적 자유왕래 캠페인
-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캠페인
- KEEP99(제5차 재미동포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 진행
- 제3차 「한·일 청년포럼」 공동주관
- 조선족 중국현지 조사

□ 2000 주요사업 추진실적

- 국내 해외동포-국내청년간 공개포럼 총 3차례
- KIN언어문화교실(시민단체간사 영어지원사업) 상시활동
- KIN한국어문화교실(해외동포 및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육) 상시활동
- 제4차 「한일·재일·일본 청년포럼」 공동주관
- KINEX-America(미국현지 동포사회 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KEEP2000(제6차 재미동포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 진행
- '재외동포법 개정1년, 재외동포법 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 2001 주요사업 추진실적

- 조선적 입국차별 일본현지 조사
- 제5차 「한일·재일·일본 청년포럼」 공동주관
- 재일한국·조선인 2-3세 서울방문 및 청년결연사업
- 재외동포법개정대책위 참여

□ 2002 주요사업 추진계획

- 재외동포법 개정캠페인
- 제1차 KINEX-Japan(일본현지 동포사회 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재일한국·조선인 3세 서울방문 및 청년결연사업 추진
- KEEP2002(제8차 재미동포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IS 추진

2002년 시민운동지원기금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KIS)

2002. 7. 22.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2002년 시민운동지원기금 지원 사업 중간보고서

1. 신청기관(법인 또는 단체)개요

단체명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자	배덕호
단체 연락처	주 소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90-16번지 1층	
	전 화	02-706-5880	
	fax	02-706-5881	
	E-mail	kin@kin.or.kr	
	담당자	직 위	집행위원
		성 명	박 범 용

2. 사업개요

사업명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사업기간	2002년 2월 ~ 12월		
총사업비	자부담: 7,955천원 지원금: 8,000천원	제단지원금	총 8,000천원 현재 지원금 현황 : 3,200천원 2차 지원금 요청액: 3,200천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여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Korean들은 오늘날 570만에 이르고 있다. ○ 중국, 일본, 구소련, 미국, 브라질, 독일 이상 6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Korean들을 국내에 초청해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주노동자이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의 삶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사회에 제기한다. ○ 결국 이주노동자와 해외동포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밝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배타적 민족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6개국 재외동포 각 1인 및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 ○ 국내 재외동포 및 소수민족 연구자 		

3. 중간 사업추진내용

추진시기(월)	사업 내용	사업 세부내용
2~3월	KIS 준비위 및 추진위 발족식	2. 9 KIS 제1차 준비위원회 3. 2 KIS 제2차 준비위원회 3.16 KIS 제3차 준비위원회 3.23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4~7월	KIS 추진위 회의	4. 6 KIS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4.27 KIS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5. 5 KIS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7.13 KIS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5~6월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5.25 제1차 공개세미나 - 미국, 브라질 편 6. 1 제2차 공개세미나 - 독일, 중국 편 6. 8 제3차 공개세미나 - 일본, 구소련 편

* 6.22 KIS 준비를 위한 제1차 워크샵 -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월드컵 8강전 한국 대 스페인 경기 관계로 개최 무산

* 재외동포 초청대상자 섭외 상황 (3~7월)

- 3월 15일 일본 곽진웅 국장 KIS 참여에 대해 자체 행사와 겹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신 옴
- 3월 22일 미국 김대영씨, KIS 참여에 대해 수업 일정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참여하겠다는 답신 옴.
- 3월 23일 KIS추진위 발족식, <KIS 해외네트워크 활동계획> 발표
- 4월 3일 한글파일 의사소통 가능여부 공지메일
독일(이희영), 일본(곽진웅), 미국(김대영), 러시아(최종술)
- 4월 3일 일본(곽진웅) 한글파일 수신가능 답신 받음. 일정 겹치지 않는다면 참여하겠다는 답신도 포함됨.
- 4월 3일 미국 김대영씨 답신 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남미국 리서치 떠난다는 말과 함께 한글파일 수신이 가능하다는 답신.
- 4월 18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쪽 KIS참여자 섭외요청 이메일 보냄
- 4월 18일 이진영 교수 답신 옴. 섭외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임.
- 5월 2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쪽 KIS참여자 섭외요청 이메일 다시 보냄

5월 5일 독일, 일본, 미국, 러시아 초청대상자에 KIS기획서(한글파일) 이메일 보냄
 5월 6일 독일 이희영씨의 메일 답신 받음. 이메일링에 문제가 있으며 한글파일을
여는데 문제있었음.
 5월 7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KIS기획서 재발송함
 5월 7일 이진영 교수가 추천한, 중국측 KIS 초청 대상자인
연변대 민족역사연구소 소장 김춘선 교수에게 KIS기획서 발송함
 5월 10일 중국 김춘선 교수에게서 KIS참여가 어렵다는 답신 메일 옴.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발제의 부담감이 있었음)
 5월 12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측 KIS 초청 대상자 재섭외 요청 메일 보냄
 5월 13일 이진영 교수, 연변대 김강일 선생과 북경의 정신철 선생에게 KIS참여와
관련된 문의를 하겠다는 답신 옴.
 6월 3일 독일 이희영씨에게서 한글파일을 열 수 없다는 답신 옴.
독일측 KIS 참여자가 신효진씨라는 내용도 보내옴.
 6월 4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KIS기획서 다시 이메일 전송함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답신 메일에 대해서)
 6월 11일 최근좌 선생에게서 브라질 KIS 초청 대상자에 대한 메일을 답신함.
<중국계 시의원 William Woo의 보좌관인 Thomas Park(박상윤)과 한인들
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Bruno(범진)씨를 추천함>
 6월 15일 이진영 교수에게 중국측 KIS 초청대상자 추진상황 문의메일 보냄.
 6월 15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KIS기획서 다시 파일 전송함.
 6월 19일 브라질 Thomas Park(박상윤)씨에게 KIN소개 및 KIS소개, KIS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이메일 전송함.
 6월 19일 독일 이희영씨에게 독일 참여자 신상에 대한 문의 메일 보냄.
 6월 19일 독일 이희영씨에게서 한글파일을 열 수 있었다는 답신과 함께 1.5세인
신효진씨가 참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옴.
 6월 19일 일본 곽진웅 국장에게 최종 참여 의사 확인 메일 보냄.
 6월 19일 러시아 리나탈리아 선생 초청과 관련하여 최종술씨에 최종 확인메일 보냄.
 6월 19일 러시아 나탈리아 선생에게 초청관련 최종 이메일을 보냈다는 최종술씨
이메일 받음.
 6월 20일 브라질 Bruno(범진)씨에게 KIN소개 및 KIS행사 소개, KIS 참여 가능여부
에 대한 이메일 전송함.
 7월 6일 일본 곽진웅 국장에게서 메일 답신 옴. 7월 말까지 하반기 일정이 결정되
는 관계로 최종 의사를 확인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함. 가능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신 내용도 포함되었음.

4. 향후 진행방향

-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회의주기를 단축시키고
 - 의제계발팀, 행사실무팀, 해외넷워크 책임자를 재조정하며
 - 각 팀별 상황공유 및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 활동보고를 강화함
- 의제계발 활동
 - KIS 4대 의제에 대한 세부의제 계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활동전개
 - 8월, 6월에 무산된 「KIS 준비를 위한 제1차 워크샵」 개최
 - 8~9월, 국외 6개국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 공개세미나 진행
 - 9월, 「KIS 준비를 위한 제2차 워크샵」 -각국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비교
 - 8~10월, KIS 4대 의제에 대한 세부의제 계발
- 행사실무 활동
 - 행사규모를 확정하고 미리미리 실무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활동전개
 - 9월, 자문위원 모시고 KIS 세부행사 기획·확정
 - 9~10월, 장소 섭외 및 자원활동가(통역도우미) 모집
 - 11월, 필요장비 대여 및 행사장 미화
- 해외넷워크 활동
 - 미섭외 재외동포 초청여부를 판단하고 이들의 의제계발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전개
 - 8월 중순까지 미섭외 재외동포 초청 여부 판단
 - 초청 재외동포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서류 구비
 - 초청 재외동포들이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함

2002년 시민운동지원기금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2002. 12. 13.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사업 결과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취지
 -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여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오늘날 570만에 이르고 있다.
 -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6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국내에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 이주노동자이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의 삶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사회에 제기한다.
 - 결국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밝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배타적 민족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사업일시 : 2002년 11월 23~25일
 - 행사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
 - 주최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재외동포재단,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 참가자
 - 각국 발제자 6명(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
 - 국내 토론자 6명(국내 거주 동포 및 연구자)
 - 재외동포 및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가 15명
 - 대학생 및 시민 10명
 - 기자 5명

- 행사의 주제
 -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각국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검토

- 한국정부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 재외동포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적 이해

○ 사업의 경과

세부사업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비 고
준비위원회 회의 3차례	2~3월	KIN 사무실	평균 4명	· 회의 안건지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3월 23일	KIN 사무실	20명	· 자료집 30부 · 음료 등 다과
추진위원회 회의 16차례	4~12월	KIN 사무실	평균 4명	· 회의 안건지
상반기 공개세미나 3차례	5~6월	KIN 사무실	평균 15명	· 자료집 20부 · 음료 등 다과
하반기 내부세미나 5차례	8~9월	KIN 사무실	평균 5명	· 자료집 5부
KIS 준비를 위한 제1차 워크샵	9월 28일	KIN 사무실	10명	· 자료집 20부 · 음료 등 다과
KIS 준비를 위한 제2차 워크샵	10월 19일	참여연대 대강당	10명	· 자료집 30부 · 음료 등 다과
K I S 행 사	환영식	11월 22일	성공회대 근처 음식점 '사랑채'	10명
	KIS 본행사	11월 23~25일	성공회대 새천년관 7417호	연인원 40여명
	서울 구경 및 뒷풀이 겸 환송식	11월 25일	인사동 '지리산' 등	15명
비디오 촬영 및 편집 · 제작 · 배포	11~12월		1명	· 비디오 10개
KIS 활동백서 발간	12월		4명	· 자료집 300부

□ 사업 성과

- 이주노동과 재외동포의 문제를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공개세미나 3차례
→ 각국 재외동포 정책 및 소수민족 정책 내부세미나 5차례
→ KIS 준비를 위한 워크샵 2차례
→ KIS 취지 ‘소수민족으로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며’ 정리
→ 6개국 재외동포 초청,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

-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적 가치 확산
→ 제2차 워크샵 '한국사회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 한국사회 재외동포 정책 및 이주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
→ KIS 선언문 '한국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합의
→ 선언문을 법무부, 외통부, 국가인권위, 재외동포재단 등에 발송
-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가능성 제기
→ 6개국 재외동포들과 한국어로 국제적인 토론을 진행
→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관점 및 연구의 필요성 공감
→ 2002년 6월 러시아 상뜨 뼈제르부르그에서 제2회 KIS 행사 개최 결의

□ 평가 및 향후 과제

- 재외동포 이주사 개괄, 각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 등 전반적으로 애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함
 - 다만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 검토와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 선정 실패
- 소수민족 및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이론이 척박한 상태에서 발전적인 개념을 도출할 내부적인 역량이 부족했음
 - 이후 지속적인 이론적 보충과 정책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특히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재외동포와 이주노동자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의 긍정성
 - 다만 현실은 재외동포 운동과 이주노동자 운동이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함
 - 향후 재외동포 운동과 이주노동자 운동 사이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함
- 심포지엄의 촛점이 동포 정책에 맞추어져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문제는 소홀히 다름
 - 이는 한번의 심포지엄에 모든 문제를 담아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향후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인권에 관한 논의 필요
- 2004년 6월 러시아 뼈제르부르그에서 제2회 KIS 행사 개최 합의
 - 이는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가능성을 제시
 - 제2회 KIS 행사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한국 책임자 선정 필요

재정 결산 보고서

□ 사업 총괄 수지표

(단위 : 원)

당초 예산 (①)			실집행 (②)			예산대비집행잔액(①-②)		
총계	자비	지원금	계	자비	지원금	계	자비	지원금
15,955,000	7,955,000	8,000,000	16,684,930	8,684,930	8,000,000	-729,930	-729,930	0

□ 수입 내역

- 시민운동지원기금 8,000,000원
- 재외동포재단 6,000,000원
- 행사참가비, 후원비 등 2,684,930원

□ 지출 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비 목	계	자비	보조금	지출내역
	총 계	16,684,930	8,684,930	8,000,000	
	소 계	267,700	267,700		
기획비	회의진행비	7,700	7,700		회의 19차례
	자료비	110,000	110,000		내부세미나 자료집 인쇄
	국제전화료	150,000	150,000		국제전화카드 15장
	소 계	236,200	236,200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복사비	18,900	18,900		자료집 30부
	자문비	150,000	150,000		자문위원 5명
	행사진행비	9,300	9,300		다과, 문구류
	뒷풀이비	58,000	58,000		
	소 계	828,700	828,700		
상반기 공개세미나	복사비	19,500	19,500		자료집 각 20부
	홍보비	50,000	50,000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강사비	600,000	600,000		발제자 6명
	행사진행비	19,200	19,200		다과, 문구류
	뒷풀이비	140,000	140,000		